

# “ 성모님처럼: 성후안 디에고 ”

글\_서희정 마리아 | 그림\_홍미현 세레나



역시 믿어주지 않았다. 발밑에 억울함과 속상함이 매달려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정말 난 보았다. 그분, 성모님을!

“엄청난 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곳에 장밋빛 옷을 입고 걸에는 파란색 망토를 걸친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요, 아름다웠어요. 그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성모님이라는 겁니까?”

“네!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달루페의 영원한 동정 마리아’라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어 주세요.”

“과달루페. ‘뱀을 부순 여인’이라는 뜻이군요.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곳에, 그러니까 제가 성모님을 만난 테페악 언덕 정상에 성당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이들이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 성당을 지으라고 주교님께 전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게 끝이었다. 주교님은 나에게 ‘증표’를 가져오라 했다. 증표라니! 그런 게 있을 리 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와 처음 만났던 곳에 증표를 마련해 두었다.”

맙소사! 그곳엔 장미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바위 언덕에, 그것도 12월에, 장미라니! 난 틸마(인디언의 겹옷, 망토)에 성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증표를 가득 담아 안았다. 왜 나일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걸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주교님한테 직접 나타나시면 될 텐데. 수많은 질문이 걸음걸음을 막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가만히 틸마를 품에 안아보았다.

그래, 성모님처럼 하자.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님께서는 증표로 장미꽃만 주신 게 아니었다. 틸마에는 내가 본 성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 틸마는 완성된 성당에 모셔졌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왜 나였을까? 여전히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다. ‘뱀’ 신(神)을 믿던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그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더는 ‘뱀’ 신(神)의 제물로 바쳐지는 일이 없다는 것. 성모님께서 정말 뱀을 부수셨다는 것이다. 나는 정녕 할 수 없었던 일, 수많은 영혼이 구제되었다.



## “생명의 어머니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생명의 백성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에 대한 확신 속에서,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시이신 마리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마리아시여! 새 세상의 빛나는 새벽이며,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시여! 생명의 모든 원리를 당신께 맡겨드리나이다. 당신 아드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소서.(생명의 복음 105항) 글\_생명위원회